



28일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리는 전북도립국악원 목요국악예술무대 '추야'는 실내악 형태로 편성돼 공연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도립국악원 고은현씨의 무대.

▶ 도립국악원 관현악단 목요국악예술무대 '추야'

가을밤 수놓는 청아한 산조 선율

전북도립국악원(원장 신동원) 관현악단이 청아한 산조 선율로 가을밤을 수놓는다.

28일 오후 7시 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명인홀에서 열리는 목요국악예술무대 '추야'는 실내악 형태로 편성돼 공연된다.

공연은 총 여섯 곡으로 구성된다. 첫 무대를 여는 '신쾌동류 거문고산조'는 중요무형문화제 제16호로 지정된 작품으로, 거문고에 최소영과 장단에 박진희가 함께 무대를 꾸민다.

이어지는 '강태홍류 가야금산조'는 전통음악 중에서 순수한 음악미를 추구하는 독주곡으로 다른 산조에 비해 경쾌한 느낌이 더하다.

곡은 계면조(솔프고 처절한 느낌을 주는 음조)를 줄이는 대신 우조(맑고

실내악 형태로 편성 공연 28일 소리문화전당 명인홀서

씩씩한 느낌을 주는 음조)와 강산제(목소리가 분명하고 정교하여 화창하고 맑은 느낌을 주는 음조)를 많이 끌어들이므로써 호쾌하고 온화한 면이 많다.

대금의 잔잔한 저음 선율에서 폭발적인 힘이 느껴지는 '원장현류 대금산조'는 서정미와 장김인두 단원의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또 헤어질 수밖에 없는 인연을 표현한 '이연'은 애절한 마음을 아쟁의 구슬픈 선율에 담아낸다. 대피리에 이재관, 아쟁에 강태홍, 피아노에 안은정

단원이 무대에 오른다. 이 외에도 '검은고양이 네로'와 '노란셔츠의 사나이' 등 대중곡 연주를 만나볼 수 있다.

검은고양이 네로는 1969년 이탈리아의 동요 콘테스트인 제11회 제키노 도로에서 3위를 수상한 '검은 고양이'가 갖고 싶었어'가 원곡으로 박혜령이 불러서 큰 화제를 모았다.

1961년에 발표된 '노란셔츠의 사나이'는 직설법 가사로 당시 은유적인 표현을 쓴 대중가요와의 차별화를 이루었다.

공연은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예약을 하지 못한 관객을 위해 공연 당일 1시간 전부터(오후 6시30분) 현장 좌석권을 선착순 무료 배포한다.

/정해은 기자

'이 젊은 작가를 주목하라'

도립미술관, '청년미술가 2018' 참여자 모집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은 '이 작가를 주목하라!-전북청년미술가 2018'에 참여할 전북청년미술가를 오는 10월 25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3명이며, 모집분야는 회화·한국화·조각·설치·영상 등 현대미술 분야를 아우른다.

신청자격은 만 40세 이하(1977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인 자로, 도내 소재 고등학교와 대학 미술관련 학과 졸업자 및 도내 3년 이상 거주자(주민등록상)에 한한다.

공모지는 참가신청서와 이력서, 최근 3년 이내 대표작 사진(10~15점)과 및 작품설명서(3~5점)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접수마감일인 5시 30분 까지 담당자 이메일(histories7003@korea.kr)로 제출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10월 말경에 개별통지 할 예정이며, 2018년도 본관 기획전시 '이 작가를 주목하라!' 전 초대 및 재료비 지원을 비롯해



1:1 평론가 매칭, 전북도립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미술가 추천, 아시아권(중국, 대만, 인도네시아 등) 레지던시 입주미술가 추천 전북도립미술관 소장품 구입 추천, 전북도립미술관 기획전 및 외부 기획전 참여미술가 추천 등 우대 혜택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립미술관 홈페이지(www.jmagnr)를 참고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UNI-VERSE 우주라는 뜻 외 '하나의 소리' 의미도 지녀"



1인 모던 록밴드 '질은' 30일 소리문화전당 '아트스테이지 소리' 무대

서정적인 멜로디와 문학적인 가사로 감성을 자극하는 모던 록밴드 '질은'이 오는 30일 오후 7시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음악시리즈 '아트스테이지 소리'에 출연한다.

'빛깔이 강하다'라는 뜻을 가진 '질은'은 싱어송라이터 성용욱의 1인 밴드로, 지난 2005년 'EP' 앨범으로 데뷔했다.

이후 2008년 첫 번째 정규 앨범 '질은'을 발표했다. 이듬해 제6회 대중음악상 올해의 신인 부문과 최우수 모던 록 부문에 노미네이트 됐으며, 같은 해 백암아트홀에서의 첫 단독 콘서트 이후 국내 모던록 장르에서 간파할 수 없는 뮤지션으로 빠르게 자리 잡았다.

질은은 지난 6월, 9년 만의 두 번째 정규 앨범 'UNI-VERSE'를 발표했다. 이번 앨범은 대자연인 우주와 인간 본

연의 소우주에 관한 깊은 통찰을 담아냈다. 전 멤버 윤형로가 프로듀서로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

성용욱은 "이번 앨범은 '내가 우주에 혼자 떨어져 있다면?'이라는 물음에서 시작된 작업"이라며 "우주라는 열린 공간에서의 생과 사 그리고 관계와 성장에 대해 노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UNI-VERSE"는 우주라는 뜻 외에 '하나의 소리'라는 중의적 의미도 지녔다고 했다.

이번 정규 음반 발매를 기념해 열리는 공연은 '질은'의 대표곡 '백야' '결'을 비롯해 2집 수록곡 'Astronaut'와 우주에 혼자 남은 고독을 표현한 'Punch Drunk Love Song' 등 고독과 외로움을 표현된 노래들을 들려줄 예정이다.

한편 한국소리문화의전당이 기획한 '아트스테이지 소리'는 지역에서 쉽게 접할 수 없었던 음악들을 만나는 무대로 10월에는 슈퍼루키 '천재'가, 11월에는 뮤지션들의 뮤지션 '노리플라'가 출연할 예정이다. /정해은 기자

소리연극 '삼례, 다시 봄!',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서 내달 14일부터 이틀간 공연

완주문화재단이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의 일환으로 제작하는 소리연극 '삼례, 다시 봄!' 공연을 오는 10월 14일부터 15일까지 2일 동안 완주 삼례문화예술촌에서 개막된다.

또 오는 10월21일에는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야외공연장, 26일에는 김제시청 대강당에서 '삼례, 다시 봄!' 공연을 관람할 수 있다.

이번 공연은 일제강점기 쌀 수탈 전진기지를 담당했던 삼례 양곡창고를 중심으로 당시 농민들의 처절한 삶을 소리로 풀어낸 연극이다. 완주문화재단은 완주, 군산, 김제 일대에 산

재한 쌀 수탈 관련 근대역사문화자원을 통해 일제강점기 쌀 수탈의 역사를 되짚어보고 청소년들에게 일본의 역사 왜곡에 대해 올바른 역사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제작됐다.

이번 공연은 극본에 김정숙 작가와 각색·연출에 지기화 국립민속국악원 예술감독, 김백찬 음악감독이 참여해 더욱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극본을 집필한 김정숙 작가는 역사적 사실을 기반으로 하되, 암울한 시대 상황에서도 이 땅에 봄이 오기를 희망하며 살았던 당시 선조들의 삶과 희로애락에 중점을 두어 등장

인물들을 생동감 있게 그려냈다. 이번 공연의 관람 포인트는 소리연극이라는 장르에 걸맞은 특별한 13곡의 노래라고 할 수 있다.

수도권 지하철 환승역 안내방송 배경음악인 '얼씨구야'를 작곡한 장본인으로 유명한 김백찬 음악감독은 국악을 기반으로 한 퓨전 음악 13곡을 작곡했다. 친숙하고도 중독성 있는 멜로디로 곡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인물들의 감정변화를 섬세하고 맛깔나게 표현했다.

한편, 공연은 모든 연령층이 함께 즐길 수 있으며, 관람료는 무료다. /완주=이종복 기자

"창간8주년"을 축하합니다.

군민에게 믿음 주는 열린 의정을 펼치겠습니다.

장수군의회
http://council.jangsu.go.kr